

주민 인식 및 행태조사를 통한 도시하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안양시 수암천을 대상으로 -

오연수* · 성종상** · 박아영* · 오세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하천 수변공간은 생태 및 경관적 특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색다른 활동의 장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정신적·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도시 오픈스페이스이다. 특히 도시하천 수변공간은 배후지와의 거리가 가깝고 안전하게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공공어메니티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이정형, 김양현, 2016). 하지만 근대 이후의 국내 하천은 환경오염 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복개되거나 방재 기능 위주로 조성 및 관리되어 하천변 공간 이용에 한계가 생겼다. 도시하천은 지리적 연속성을 갖고 주변 도시뿐만 아니라, 인구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하천 친수공간의 다양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수암천과, 하천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연계가능성이 높은 4개의 행정동: 안양 1동, 안양 3동, 안양 4동의 일부 구역을 포함한다. 수암천은 수리산(488m)에서 발원한 산지계류형 지방하천으로 안양천의 제 1지류이며 유로 연장은 7km, 유역 면적은 8.32km²이다. 상류 구간에는 산림지가 위치하며 중하류에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되어 있고 넓은 범위로 도시와 접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하지만 양안으로 둘러싼 도로와 주차된 차량, 높은 옹벽과 낙후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이용에 편리성이 저해되었고 공간적 매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암천이 가진 도시하천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의 현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인식과 실질적인 이용 행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하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대상지 현장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행태조사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하천 이용 인식 및 행태를 조사하였다.

첫째, 현장조사를 통해 하천 보행환경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천의 이용성을 분석한다.

둘째, 판넬 및 서면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분석한다.

셋째, GPS를 이용한 행태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중심으로 관찰되는 주민들의 하천변 이용 행태를 분석한다.

II. 연구결과

1. 현장 데이터 분석

현장답사를 통해 수암천변 이용 환경을 살펴본 결과, 하천 상류부터 중류 구간은 보행자 전용도로가 부재하며, 하류가 시작되는 '금융2교'~'병목안로 새마을금고 앞 오거리' 지점은 하천변 도로가 주변 건물과 교통시설로 단절되어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하천 산책로는 하류부터 좌안에 단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자전거와 보행자 공존도로로 전 구간 약 3m의 폭으로 유지된다. 수암천은 전 구간 건천화가 진행되었지만 '양지 1교' 하부에 위치한 하천유지용수 방류구를 기점으로 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접한 오픈스페이스는 대표적으로 삼덕공원이 있으며, 이곳은 수암천과 환경사제방으로 연계되어 하천 연변에 입지한 친수공간 중 가장 높은 이용도를 보인다.

2. 설문조사 분석

설문조사는 평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 삼덕공원에서 진행하였다. 판넬형 설문은 4개 문항, 서면형 설문은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문은 수암천과 안양동 거주환경에 관한 주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판넬형과 서면형 설문조사에는 각각 30명과 2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